

‘믿음과 실천’ 불교 수행의 근간

한국정토학회 ‘대승불교에서의 수행에 대한 문제’ 세미나

불교는 ‘수행’과 ‘깨어있음’을 강조한다. 수행하지 않는 불자는 결코 깨어있을 수 없고, 깨어있는 불자도 수행을 통해서만이 부처의 세계로 향한다.

수행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에서 수행이 주목받은 시기는 근래의 일이다. 해방 후 기독교를 거쳐 1990년대 중반개혁과 불교 교양대학 출현 등으로 대변되는 교학불교는 부처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수행을 통해 깨어있는 불자를 양성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야 출가자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수행이 재가자로 확산·대중화되며 수행불교라 불리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정토, 화엄, 선, 밀교 등 대승불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승불교의 수행에 관한 학술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끈다.

한국정토학회(회장 태원)는 10월 2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대승불교에서의 수행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제1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불교학 각 분야의 대표 학자들이 발표했다. 기조강연한 태원 스님(중앙승가대)을 비롯해 정토학자인 보광 스님(동국대), 화엄학자인 도업 스님(동국대), 선학자인 김호기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밀교학자 종석 스님(중앙승가대)은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수행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 삼학은 불교 수행의 근간

태원 스님은 기조강연 ‘대승불교에서의 수행의 문제’에서 “계·정·혜 삼학이 불교 수행의 근간”이라

주장했다.

스님은 “불교 기초교리부터 마땅히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계·정·혜 삼학이 강조된다”며, “계의 수행으로 선정이 생기고, 선정에 의해 지혜가 있고, 이 지혜에 의해 수행의 목적지인 깨달음을 완성해 성불한다”고 설명했다.

태원 스님은 “삼학 중심의 수행이 부처님 당시부터 설했다”며 “장아함경” 등을 인용해 전거를 들었다.

〈장아함경〉에서 부처님이 “모든 비유에게 이르기를 네 가지 깊은 법이 있다. 첫째는 성스러운 계(聖戒)요, 둘째는 성스러운 선정(聖定)이며, 셋째는 성스러운 지혜(聖慧)며, 넷째는 성스러운 해탈(聖解脫)로 이 법은 미묘한 것으로 알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이 삼학을 뜻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스님은 “해탈을 위해서는 삼학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삼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인의 수행이며, 해탈은 수행의 결과”라 말했다.

〈장아함경〉의 지계(持戒) → 선정(禪定) → 지혜(智慧) → 해탈(解脫)로 이어지는 수행 차례가 대승경전인 〈열반경〉으로 이어졌다. 태원 스님은 “남방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인 위빠사나 수행도 계·정·혜 삼학의 체계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사분출·오분출” 등을 인용해 “모든 율장이 말하는 계의 역할은 선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계와 정 없이 관법이 가능하다는 일부 수행자의 견해를 비판했다.

태원 스님은 “삼학을 근본으로 지

계와 선정, 지혜를 구체화해 육바라밀 수행 등 대승불교 수행법이 출현했다”고 주장했다.

■ ‘믿음(信)’이 정토수행 핵심

‘정토교의 수행방법론’을 발표한 보광 스님은 “극락정토와 아미타불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극락왕생과 깨달음을 인접할 수 없다”며, “정토수행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무량수경〉의 ‘자심신락육생아국내지십념(至心信樂欲生我國乃至十念)’ 구절을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자 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십념정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로 해석한 스님은, “지극한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이미 모든 수행은 완성된 것”이라 설명했다.

■ 화엄수행은 생활 속 실천

도업 스님은 주제발표 ‘화엄의 수행’에서 “화엄수행은 신해행증(信解行證) 가운데 ‘행(行)’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도업 스님은 “대승불교의 모든 실천행은 십바라밀로 귀결된다”며 십주(十住)와 십행(十行), 십지(十地), 십회향(十回向)을 십바라밀로 도식화해 설명했다.

스님은 “〈화엄경〉의 절반이 가까운 17품이 보살이 가야할 길(보살도)과 행해야 할 실천행(보살행)에 대해 설명했다”며, “실천행이 진정한 보살행이 되려면 믿음과 발보리심(發菩提心)과 원(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화엄수행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願),

력(力), 지(智)를 실천하는 지극히 일상생활적이며, 개개인의 행동규범”이라 말했다.

■ 신심 없는 선수행 없어

김호기 연구교수는 ‘조사선에서의 수행의 양상과 신심의 관계’를 발표했다. 김 연구교수는 “신심은 발심의 근원이며, 모든 보살행의 시작이다. 수행과 깨침을 위한 기초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보살행의 완성”이라 강조했다.

김호기 연구교수는 “신심은 보리달마에게서는 벽관수행으로 드러났다. 대혜의 간화선에서는 대신신(大信根)·대의단(大疑團)·대분지(大憤志)라는 화두참구의 모습으로 전개됐다. 광지의 목조선에서는 본증자각(本證自覺)이라는 본래 믿음(本來信)을 바탕으로 지관타좌(只管打坐)의 좌선수행으로 성취됐다”고 정리했다.

■ 밀교수행 바탕은 보리심

종석 스님은 ‘밀교의 수행’을 〈보리심론〉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보리심론〉은 발보리심(發菩提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즉신성불(卽身成佛)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설명한 밀교의 수행지침서다.

스님은 “밀교는 불교의 완성이다. 밀교의 수행법은 중관과 유식의 알라야시, 여래장 사상을 계승·발전시켰다”며, “밀교의 키워드인 즉신성불을 위해서는 보리심이 필수”라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진천 영수사 괘불 내년 4월까지 일반 공개

통도사 성보박물관 10월 7일부터 괘불탱 특별전 개최

보물 제1551호 진천 영수사 괘불(사신)이 일반에 공개된다.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10월 7일부터 2009년 4월 1일까지 진천 영수사 괘불탱 등을 전시하는 제20회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한다.

진천 영수사 괘불은 국내에 현존하는 불화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63년 조성된 작품으로, 조선시대 영산회상도 가운데 가장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불화로 손꼽힌다.

가로 554cm, 세로 813cm 크기의 삼배바탕에 안료를 쓴 작품으로, 삼배 17쪽을 횡으로 연결해 한 화폭을 구성했다.

괘불은 안료 벗겨짐과 구김 등이 심해 최근 보존처리를 거쳤다. 중앙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인물들이 빼곡히 둘러싸인 구도로 본존 대좌 전면에 표현된 비구형 청문자를 중심으로 화면은 크게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된다. 상단부는 본존을 중심으로 18보



10월 7일부터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공개되는 진천 영수사 괘불탱.

살, 가섭·아난, 16나한, 범·제석 등 약140위의 존상을 가득 채

치한 영산회 설법도량을 묘사했다. (055)382-1001 조동섭 기자

“배타적 개신교 근본주의가 뿌리”

“국가권력·물질주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나, 타종교나 이단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개신교 근본주의가 최근 종교편향 사래의 뿌리다.”

김신대 기독교통합학문연구소 등 개신교 학술단체가 9월 30일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의 배타주의’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는 이같이 주

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 교수는 “한국 개신교의 독특한 근본주의가 기독교 권력을 매개로 타종교에 일방적으로 배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무 교수는 “종교편향 재발을 위해서는 정부는 종교편향 방지 법제화를 시행해야 하고, 종교계는 소통의 기회를 활발히 가져야

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김희성 명예교수(서강대)는 ‘한국기독교의 배타성은 어디서 오나’를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한국기독교의 배타주의” 공동학술세미나서 토론 중인 유승무 교수(우측).

조동섭 · 이상연 기자

매장문화재 신고하면 포상금 '1억원' 이근무 교수 “금석문 디지털 보존해야”

앞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하면 최고 1억원 포상금을 받는다.

문화재청(청장 이근무)은 “문화재 발굴 포상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46호) 및 시행규칙 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매장문화재 신고 포상금은 발굴 문화재

가치에 비해 포상금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상황 조정으로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활성화와 해저 유물 불법인양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발굴조사기관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발굴조사원 중복투입을 가능하게 했다. 보호물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절차 조항 등도 포함됐다. 조동섭 기자

경주 석굴암, 동종 및 석탑류에 새겨진 부도는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탁본 등 아날로그식 보존이 아닌 이미지 처리를 통해 디지털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근무 교수(위대대)는 불교학연 구회(회장 본가)가 9월 27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2008년 가을논문발표회에서 ‘불교 금석문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기술적 제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컴퓨터 그래픽에 사용되는 렌더링 기술 등을 불교 콘텐츠에 적용해 디지털화하면 새로운 캐릭터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이종수(동국대 박사과정)씨가 ‘숙종 7년 중국 선박의 표차와 백암성총의 불서간행’을, 하유진(서강대)씨가 ‘축도생의 실상관’을 발표했다.

조동섭 · 이상연 기자

최문순 의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가·지자체 의한 문화재 훼손 막고자”

문화재청의 보존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청건물(서울시 등록문화재 제52호)을 기습적으로 철거하면서 문화재보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등록문화재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

의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한 등록문화재 145건을 현상 변경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문순 의원은 “8월26일 등록문화재 52호인 서울시청 본관 일부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불

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의해 기습적으로 철거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을 막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병원에서 안 되는 병 기공의학으로 고친다!

스님! 소백산 수련원으로 오세요. 스님들의 건강 쉽터가 되겠습니다.

■ 소백산 수련원에는 통증이 즉석에서 사라지고 어혈이 맑아지는 것을 즉석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비법이 있습니다. <미국 FDA인증> www.chgg.co.kr

상기증, 호르몬관, 불면증, 심근경색증, 협심증, 당뇨, 만성두통, 갑상선, 척추, 고관절, 허리, 좌골, 골반, 어깨, 관절, 디스크, 엘보, 협착, 변비, 어지럼증, 위장, 회춘, 혈행장애, 손발저림, 수족냉증, 만성피로, 인면풍

■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고 침, 뜸, 부항, 척추교정도 그때때이고 다시 재발하는 분

■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분

◇ 모든 만성병은 골반변형으로 생깁니다. 골반, 척추를 바로잡지 않고 병을 고치려는 것은 손 없이 보물 산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 자기 스스로 골반을 교정하고 통증을 치유하는 자가 치유법을 배우면 평생 건강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생체전기(자기장)가 전신을 감싸고 무너진 생명원기를 되찾아 온몸이 더워지고 수승화강을 이루어 난치병을 치유하는 기(氣)의학의 실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독일 동서의학병원 임상시험 인정증 획득!

※ 16년 동안 전국의 수많은 스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천일의학기공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구초등학교자리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 자원봉사의 집 -



전국 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 찾아주기 / 전국소년소녀기장 “무료봉사” 건강 찾아주기
근 양화사 건강원 근 고려수치 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분회



인간생명의 존중과 복지차기 구현을 실현하여 건강 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 위한 전국 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 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이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 (생활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분들에 한하여 관할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경통, 관절, 혈압, 성인성질환>(아토피, 피부, 부인성질환) <불치난치성질환> <각종 희귀성질환> 등에 대하여 “수지 대체요법”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 <수지대체요법, 민간요법, 자연요법, 체질개선> 기능식품, 자연식품, 건강식품 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양화사 건강원, 고려수치 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한상기 / 분회장: 천광

서금요법 수지침 무료교육 안내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 등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은 “가정의 건강관리” “수지침 자원봉사” 고령화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대체의학입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을 아시면 어느 곳에 있다 하여도 건강걱정 줄여 줍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 “자격증” 취득하여 “자원봉사”에 참여 합니다.

※ 전국지방 각종단체 “무료출장교육” 신청 상담 받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 201호 ☎ 문의 031)251-2213, 254-2213 / 전화 · 팩스 258-2213, 010-3013-2213

한국 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광 합장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207186-51-080520 / 제 일 604-20-378236 / 국 민 877001-01-362102 /

우체국 104323-01-001733 (예금주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